

# AtoM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관리방안\*

- '기록사랑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thods to Manage Private Records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Focused on 'Archive Village'

육 혜 인 (Hye-In Yuk)\*\*

김 용 (Yong Kim)\*\*\*

장 준 갑 (Jun-Kab Jang)\*\*\*\*

### 초 록

본 연구는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2014년 기준 3,000여 점에 달하지만, 기록물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들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자 의견 가운데 하나인 '기록물의 전산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 '인력과 비용 문제', '시스템 구축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웹 기반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anagement plans for 'Archive Village' that are operating in order to protect important private records and archives. Since 2008, Archive Villages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ve had nearly 3,000 more records by 2014. However, many users have had difficulties to know the status of the recorded material, even less access to record's informations. This problem arising is that it is difficult to manage and use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which is to realize the 'Computerization of records' official opinion, one of which was raised in the previous study. Because the project is facing the issue of 'human resources and costs', 'the burden of system construction'. This study is implemented records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roblems noted above,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키워드: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민간기록,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공개 소프트웨어, At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 Village, Private Records,  
Archives Management System, Open Source Software, AtoM(Access to Memory)

\* 본 연구는 2014년도 후반기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bloomhi6@gmail.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yk9118@jbn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소장(jkchang@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5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79-105,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079]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에 기록관리 체계가 도입되고, 1999년 최초의 전문적인 기록관리법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지 2015년 기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가 시작되었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북미나 유럽의 체계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기록 위주의 기록관리 체계가 마련되었고, 기록관리 영역은 국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정적인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99년 기록관리법』이 2006년 10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로 개정되면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법률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

국내 기록관리 영역의 최고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 및 지원 사업』(이하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은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민간 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적으로 매년 1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2014년까지 총 7개의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약 3,000여 점의 기록물이 각 기록사랑마을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7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또한 지정행사와 단순지원 이상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기록물은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역사·문화적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물로서,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과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록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록관리 영역의 활성화’라는 국가기록원의 사업 실행 취지와는 달리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기록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 소장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기록사랑마을의 현실적 한계인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기록관리 전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민간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사업의 현행상을 살펴보고, 기존 기록물 관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지식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록학계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주목하였고, 이보람 등(2013)의 연구를 시작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민간 아카이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록 관리용 웹 기반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을 활용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AtoM이 지향하고 있는 기록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설치와 사용법이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호환성, 확장가능성이 높아 향후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 기록물의 전산화를 실현시키는데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록에 대한 문헌연구와 기록사랑마을 현장실사, 관계자 면담을 수행하였고, 기록물 분석을 기반으로 AtoM을 활용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간기록 관련 주요 정책과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둘째, 민간 영역에서의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고찰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기록사랑마을을 실제로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기록사랑마을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일시와 관계자와의 면담일시는 2014년 2월 12일에 동시에 진행되었고, 국가기록원 담당자와는 2014년 11월 10일에 전화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넷째, 실제 AtoM을 활용한 기록사랑마을 콘텐츠의 기록화를 진행하기 위해 AtoM 웹 호스팅을 신청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 1.3 선행연구

기록사랑마을과 관련된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은 마을과 마을 주민에 대한 기록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록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민간기록물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주관(2005)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일상사, 생활사, 구술사, 지방사 등 미시사적인 접근이라 불릴만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생활사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이 갖는 의미와 방법적인 문제를 논의하였고, 김상호(2007)는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관련하여 기록물의 기증 또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수탁 보존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영남(2008)의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연구를 통해 민간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는 마을 아카이브 또는 공동체 아카이브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영남(2012)은 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의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한편, 광건홍(2011)은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를 주장하였으며,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민간 기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민간기록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전문적인 인원과 시설의 확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기록학계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인 AtoM을 활용한 연구로써 이보람 등(2013)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과 특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설치방법 등을 소개하고, 예시를 통해 AtoM의 향후 활용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이후 심갑용 등(2015)은 AtoM을 활용한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안대진(2015)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AtoM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기록의 웹 전시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를 활용한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2014)의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2014)의 조선 노동 아카이브, 설문원 등(2014)의 밀양 송전탑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민간기록의 개념과 유형

민간기록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기록학회(2008)는 민간기록물의 사전적인 의미를 “비(非) 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private records’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민간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공공기록물의 상반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상호(2007)는 민간기록물을 “고문서, 사문서, 편지, 일기, 메모, 가계부, 사진, 파일, 테이프 등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중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라고 정의하였고, 남경희(2009)는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못지않은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국가적 자산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김지현(2014)은 민간기록물이 메뉴스크립트(manuscripts)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물과 비텍스트 기록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민간기록물’은 공공영역 이외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소유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김해중(2014)은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가 누구 혹은 어디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민간기록물의 유형은 공공기록물과 생산주체가 다를 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기록물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해준(2000)은 지방 역사기록물 가운데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시기에 따라 전근대사 기록물과 근현대사 기록물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의 기록물 유형을 구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전근대사 기록물은 고문서, 문집류로 구분하였고, 근현대사 기록물은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 기록물, 개인 생활사 자료(구술 기록물), 각종 사설단체의 기록물로 구분하였다(최정은 2010; 김해중 2014에서 재인용).

## 2.2 공개 소프트웨어와 AtoM (Access to Memory)

공개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는 소스 코드를 웹상에 공개함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서버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감축, 시간과 인력을 비롯한 개발 투입비용의 절감 등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을 수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록관리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는 AtoM, Omeka, Archivematica 등이 있으며, 각각 기록(정보)의 관리 및 검색/

열람 서비스, 전시 및 온라인 출판 서비스, 장기 보존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중에서도 AtoM을 활용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AtoM은 ‘Access to Memory’의 약어로 아카이브 영역에서 컬렉션과 기록 기술을 위해 ICA의 PCOM(Program Commission) 프로젝트와 Artefactual이 협력,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웹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장 기록 또는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웹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록(정보)의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 되어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현재 약 28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네스코, 캐나다 벤쿠버, 미네소타 등 해외 각지에서 이미 AtoM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명지대 기록대학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가 최초로 2014년 4월 ICA-AtoM 사이트에 공식 등록되었다. 무엇보다도 AtoM은 ICA 기술 표준인 ISAD(G), ISARR(CPF), ISDIAH, ISDF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기술의 표준에 따라 쉽게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toM의 기능은 <표 1>과 같이 등록(Add), 관리(Manage), 들여오기(Import), 관리자(Admin) 기능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1〉 AtoM의 기능과 세부내용

상위 기능	하위 기능	세부 내용
등록(Add)	Accession records	입수된 기록물 등록
	Archival description	입수된 기록 기술 등록
	Authority records	전거레코드 등록
	Archival institution	기록물 생산·보존 기관 등록
	Terms	기록물 및 시스템 관련 용어 등록
	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관리(Manage)	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및 검색 제공
	Donors	기증자 목록 및 검색 제공
	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및 관리
	Rights holders	소유 단체 및 개인 이력 등록 및 관리
	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및 관리
들여오기(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관리자(Admin)	Users	AtoM 사용자 등록 및 관리 부여
	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및 변경
	Static pages	정적 페이지 관리
	Menus	메뉴 추가 및 순서 변경
	Plugins	AtoM에 적용된 플러그인 변경
	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Settings	시스템 전체 설정
	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전거레코드 등에 대한 목록 제공
	Visi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저장소' 숨김/보임

(심갑용 외 2015)

### 3. 기록사랑마을 현황 분석

#### 3.1 기록사랑마을 지정현황 및 중요성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이란 『2006년 공 기록관리법』의 적용범위가 공공기관 기록물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민간기록물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민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기록관리 저변 확보와 기록을 사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표 2〉와 같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개의 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림마을'이 제8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될 예정이다(국가기록원 2014).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 고유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노력

〈표 2〉 2008-2014 기록사랑마을 지정현황

연도	구분	지역	주요내용
2008	제1호 기록사랑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합백역	석탄채굴 중단으로 철거된 역사(驛舍)를 주민들이 모금하여 부지 매입 및 역사 복원, 주변 박물관과 연계
2009	제2호 기록사랑마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마을	파주마을 한국전쟁과 수해를 겪으면서 수도권 신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파주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전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발굴
2010	제3호 기록사랑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마을	140여년(1780~1922)간 계속 생산된 호적중초(마을 생활상 복원 가능 기록) 및 절목, '내고장역사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현대 기록물 발굴
2011	제4호 기록사랑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임야원도(1911년), 호적단자(200여년전), 호적표, 세덕사(사당) 관련 기록물 및 각종 유물 등 보유
2012	제5호 기록사랑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마을 내 소재한 주요 전통가옥 내 1900년대 초기 고문서 및 감찰기록, 추수대장 및 영농일기, 편지,故 이중재 의원 선거관련 기록물 등 500여점 보유
2013	제6호 기록사랑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농기구, 생활도구, 행정박물류 등 700여점 보유
2014	제7호 기록사랑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군항마을	진해근대사 사진류, 해군관련 인쇄물 및 기념품, 진해 생활역사물류 등 350점 보유

(국가기록원 2014 재편집)

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사랑마을은 마을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만의 개성을 창출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가치를 확립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을 홍보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특유의 기록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이 가지는 가치는 마을 아카이브 관련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김화경(2012)은 “마을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의 매개체로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기록사랑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생성된 공통의 기억을 간직한 기록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주민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 현재 기록사랑마을의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직접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지만 기록사랑마을의 홍보와 기록물 보존을 위한 지원에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향후 민간영역 중요 기록물의 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간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마을 단위의 기록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밝히는 보고서에서도 기록사랑마을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기록사랑마

을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영역의 중요기록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마을 기록물이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민간기록 관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기록사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기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다방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2 기록사랑마을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 사업은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와 '기존 기록사랑마을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3).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 3>과 같이 민간기록물 발굴, 시설 조성, 보존관리 및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제

결과 기념행사 개최 등의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단, 전시관 등 건축물 건립 지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요청 시 마을회관, 역사관 등 전시가 가능한 건물이 설치된 마을에 한해서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로 인한 기록물 소실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숙식시설이 가능한 건물을 제외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4).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국가기록원은 각 마을별로 4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예산지원은 1회 한정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개관식을 위한 행사 개최 비용과 전시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용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국가기록원(2013)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기록사랑마을 사업이 진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표 3> 기록사랑마을 지원 현황

민간기록물 발굴, 시설 조성	보존 관리 및 컨설팅 지원	MOU, 기념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민간 기록물 발굴 지원</li> <li>• 마을 기록 보존 및 전시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관 조성(패널 등)</li> <li>- 보존시설 지원</li> <li>- 기록물 복제</li> <li>- 전시회 홍보물 제작 (현판, 홍보물, 영상물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보존 처리 (소독, 탈산, 복원·복제 등)</li> <li>• 기록물 재질별 보존관리 방법 등 컨설팅</li> <li>• 보존 상자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판 제막식</li> <li>- 지정서 전달</li> <li>- MOU 체결 등</li> </ul>

※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 내용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음.  
(국가기록원 2014)

1) 초기에 지정된 1호와 2호 기록사랑마을은 제외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각 마을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방식이 저마다 다르며, 기록물의 기본적인 현황과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중요 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기록사랑마을 인식수준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예산 부족과 운영 인력 부족,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 역시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다. 기록사랑마을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 결과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여 소장품 현황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부 소장품의 경우 햇빛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 기록사랑마을이 기록물의 단순전시 외에는 양질의 콘텐츠로 발전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등의 추가적인 발전이 적은 채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기록물의 방치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전시공간의 부족, 전담인력의 부재, 담당 기록연구사의 업무과다 및 기록관리체계가 미흡하였고, 무엇보다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홈페이지 개설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록사랑마을 보유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2월 12일에 진행된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록물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기록물의 정리·분류 지원을 희망한다. 셋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기록사랑마을 기록관리 담당은 대부분 지자체 소속 기록연구사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연구사 1명이 해당 지자체 관련 기록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 기록물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관리만을 담당하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력을 국가기록원에 배치하여 기록사랑마을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3.3 기록관리시스템 도입과 AtoM의 활용성

기록사랑마을이 단순히 국가기록원이 진행하는 사업의 한 영역이 아닌 민간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사랑마을이 계속적으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록물의 양적증가와 기록물 유형의 다양성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기록사랑마을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록사랑마을간 연계가 보장되고 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된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과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한 방식의 기록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정채되어있는 기록사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량의 기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장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록사랑마을 간 연계 기능, 접근성 확보,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록사랑마을은 국가기록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민간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설립과 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목적,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기록관리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에(이보람 외 2013)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전문인력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관리시스템인 AtoM에 주목하였다. 기록관리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과 같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학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한다면 국가기록원이 사업 운영 취지에서 밝히듯 민간기록 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toM을 활용한다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고, 기관에 적합한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민간 아카이브에 적합한 특성으로 기록사랑마을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최적화(customizing)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공유, 검색, 활동 등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과 같이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

를 겪고 있는 민간기록 관리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4.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유형 및 특징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전통과 근·현대 시대를 거치며 생산된 만큼 기록의 출처가 다양하고, 종류도 고서·고문서, 공예, 견본 선물, 행사 기념품, 상·훈장, 상징, 사무집기류, 생활용품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표 4>는 2014년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은 기록사랑마을별 기록물 현황 자료를 토대로 7개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4.1 문서류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문서는 대부분 비전자기록물인 종이기록이며, 중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복원·복제 등을 거쳐 전시공간과 보존공간에 따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시대와 근현대시대를 거치며 생산된 기록물인 만큼 많은 양의 고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관련 행정문서와 중요민속자료 지정서, 마을 홍보자료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와 마을주민의 일상이 담긴 학생증, 졸업장, 임명장, 혼인증명서, 편지, 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일부 마을에는 해당 마을 출신 인물의 선거기록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의 옛 모습이 담긴 지도와 도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표 4〉 제1호-제7호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현황

구분	주요 전시기록물	형태	소장량
강원도 정선군 합백마을 (제1호)	석탄채굴·탄광기록, 함백역 복원 전과 후 등	종이문서, <sup>2)</sup> 도서, <sup>3)</sup> 신문, 박물, 사진	134점
경기도 파주시 파주마을 (제2호)	파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파주교육관련 기록물, 한국전쟁, 수해복구, 옛마을모습 기록 등	종이문서, 도서, 박물, 사진	60여점
제주도 서귀포시 안성마을 (제3호)	140여년(1780-1922)간 단절없는 호적중초, 절목, 고문 서, 내고장역사찾기 발굴 기록 등	고문서, <sup>4)</sup> 고서, <sup>5)</sup> 종이문서, 사진	132점
경상북도 포항시 덕동마을 (제4호)	덕동마을 관련 기록, 문중 관련 기록, 세덕사 관련기록, 호적단자, 호패, 생활용구, 농기구 등	고서, 종이문서, 박물, 사진	1,150여점
전라남도 보성군 강골마을 (제5호)	감찰기록, 추수대장 및 영농고재 등, 전통가옥, 옛날 교과 서, 故이중재 의원 선거관련 기록물 등	고서, 종이문서, 박물, 사진	500여점
전라북도 임실군 원천마을 (제6호)	민선면장 사용관인, 초·중등교과서, 행정박물, 고문서, 농기구, 생활용구 등	고서, 고문서, 도서, 박물, 사진	700여점
경상남도 창원시 (제7호)	해군관련인쇄물 및 기념품, 진해생활역사물, 이승만대통 령과 장개석총통 진해회담 사진 외, 담배역사물 등	종이문서, 도서, 박물, 사진, 지도	350여점

소작증, 토지세영수증, 조세영수증 등 마을의 역사와 관련하여 행정·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마을에 위치한 전통가옥 내에서 수집된 기록물로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증빙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로서 문화적,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면서 이들의 전문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소독, 탈산, 복원·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일부 기록물의 경우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공간에 배치하고, 원본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구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향후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2 도서류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도서류에는 전통·근대 시기 만들어진 고서와 현대에 생산된 도서, 간행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서에는 옛 문헌들과 호적중초, 소작료장부, 영농일기 등 옛 전통가옥에서 발견된 다수의 고서들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수집·기증되어 기록사랑마을에 소장되어 있었다. 고서의 경우 고문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사랑마을에 전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국가기록원의 지원 아래 별도로 보존처리하여 원본과 복제본을 분리보존하였다. 그 밖에도 마을주민들이 근·현대시기를 직접 살아가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준) 이후에 생산된 문서를 지칭함(신문 제외).

3)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준) 이후에 생산된 도서류를 지칭함.

4)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준)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지칭함.

5)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준) 이전에 생산된 도서류를 지칭함.

기록물인 교과서 및 잡지, 참고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희소성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마을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록물로서 마을만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4.3 박물관

기록사랑마을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형태는 박물관이다. 대부분의 기록물이 마을주민들에게서 수집·기증된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은 마을환경과 마을의 가치관, 주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크게 행정박물관과 생활용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박물관은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마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록물이다. 예를 들어 임실군 기록사랑마을은 민선면장의 직인과 현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해방 후 마을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생활용구는 마을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억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 기록사랑마을 별로 생활용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1호 기록사랑마을인 정선군 함백역 기록사랑마을의 경우에는 과거 석탄채굴로 형성되었던 역사(驛舍)와 관련된 박물관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고, 6호 기록사랑마을인 임실군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농업관련 직종을 가진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따라 생활용구 또는 농기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7호 기록사랑마을의 경우에도 과거 해군기지였던 마을의 역사에 따라

해군관련 기록물이 많았다. 이처럼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기록물의 경우 마을주민의 역사나 생활이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4.4 시청각류

시청각 기록은 마을주민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기록과 마을 관련 행사나 사건을 기록한 기록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하는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주민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시청각 기록들은 공모전 등 마을만의 행사를 통해 수집·기증되었다. 제7호 창원시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 이전 반상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로 진해 근대사 사진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였고, 근대역사 테마거리에서 사진 전시회 및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왕성하다(경상남도, 창원시 2013). 또한 마을 축제나 체육대회 등 마을 관련 행사나 사건을 기록한 시청각류는 당시 마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마을의 역사와 마을주민의 일상생활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사기록물과 생활사 기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동유와 이경준(2013)은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을만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 마을에서만 전해오는 풍습, 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는 기본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민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에 복무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를 구성

〈표 5〉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특징

구분	기록사랑마을
생산시점	전통시기와 근현대시기 생산된 기록물이 혼재
수집방식	수집기준이나 정책이 없이 마을별 자체적으로 선(先)수집
형태	다양한 유형의 아날로그 형태 기록물
활용목적	보존기록으로서 전시 목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소통의 과정을 아카이빙하는 생활사 아카이브의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이다.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마을 아카이브로서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두 번째 역할과는 깊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록사랑마을의 역할은 생활 아카이브의 역할보다는 생활사 박물관의 역할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이 가지는 특징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기존의 기록학계에서 제기된 ‘마을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등이 다루는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 5. AtoM기반 기록사랑마을 콘텐츠 관리방안

### 5.1 요구사항 분석

#### 5.1.1 시스템 개발 측면

첫째, 기록물 목록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5년 현재 총 7개의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약 3,000여 점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를 통합

적으로 목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기록사랑마을의 선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당시 각 지자체가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던 마을별 기록물 목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마을별로 형식이 제각각이며 한글, PDF, EXCEL 등 통일되지 않은 포맷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마을마다 기존 관리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록물 목록의 통일화가 어렵다 할지라도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된 이후에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장점으로는 학술연구자의 주제 및 기록탐색을 용이하게 하고(김태영 외 2014), 이를 바탕으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활용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대 이슈는 시스템 보안이다. 정보보안이란 정보 시스템 내부에 보관되거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시스템 내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김용 2015). IT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등장한 디

지털 환경에서 국가와 기관,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안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AtoM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인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2014년 8월 스토리지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인 ‘SynoLocker 랜섬웨어<sup>6)</sup>’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승일(2014)은 시스템 도입시 보안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백업/복구 정책 수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였고, 시스템 보안 및 관리를 위한 보안 담당 엔지니어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5.1.2 관리적 측면

첫째, 편의성을 고려한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있는 접근을 고려하여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록군의 계층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기록물의 주체가 다르고, 유형도 여러 가지인 기록사랑마을 보유 기록물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피로감이 적고, 업무량이 많은 관리자 입장에서 별다른 부담 없이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toM 시스템 속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다양성을

반영한 적절한 계층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대부분 비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웹을 통한 원본 확인이 쉽지 않다. 이를 향후에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Being digital’화를 거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웹을 통해 디지털화된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각 마을은 지자체 소속 기록연구사가 지자체에 소속된 기록사랑마을을 담당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을위원장이나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이 함께 기록사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기록연구사가 한 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 신청부터 개관까지 모든 관련업무와 더불어 각 지자체 관련 전체 기록관리 업무를 동시에 홀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마을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마을기록물을 잘 이해하는 추가적인 기록사랑마을 전담 전문가의 배치가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기록사랑마을의 취지를 이해하고, 운영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여 기록사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5.2 AtoM을 활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현

### 5.2.1 콘텐츠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사랑마을 기록

6) 랜섬웨어(Ransomware)란 Ransom(몸값)+Ware(제품)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며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해 각종 오피스 문서 및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압축 파일 등을 암호화 처리하고, 암호 해제 방법을 제시하며 일정 시간내에 해커 계좌로 복호화 비용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이승일 2014).

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관이 다루는 자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AtoM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콘텐츠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안대진(2015)은 AtoM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장 기록물의 양과 매체 유형, 내용적 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록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량 및 구조 분석, 매체유형 분석,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기록물의 수량을 파악하고 기록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3,000여 점이고, 매년 새로운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400여 점의 기록물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콘텐츠는 대부분 비전자기록물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류·도서류·박물관류·시청각류로 나뉜다.

다음으로 분석되어야 할 부분은 기록의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AtoM을 활용하여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계층을 설정해야 한다. AtoM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록 계층은 컬렉션(Collection), 풍(Fonds), 서브풍(Subfonds), 시리즈(Series), 서브시리즈(Subseries), 첼(File), 파트(Part), 건(Item) 등 8개이다. 이러한 기록 계층은 AtoM의 관리(admin) 기능을 통해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므로 관리자가 아카이브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록물의 분류를 위하여 마을 아카이브를 수행하고 있는 타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였고(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자원센터 2013), 이를 AtoM에 적용한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계층구조는 기록사랑마을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마을별 특징과 컬렉션별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실군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을 가지고 각 건(Item)으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컬렉션별로 기술한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임실군 기록사랑마을 콘텐츠 기술계층 예시

기록 계층					기술(description)							
컬렉션	종	시리즈	철	아이템	식별자	생산자(기증자)	생산연도	유형	수량	보관위치	공개여부	설명
마을 이야기	원천마을	명칭 유래	/	마을 소개 패널	WC0001	원천마을	2002	박물	1점	임실... 전시관	공개	기록사랑마을 입구...
역사 기록	/	전통		고문서	토지수전 매매계약서	HI0002	미상(곽영일)	1884(광서 10년)	문서	1점	임실군청 기록관	비공개
민속 기록		근현대	생업 도구	홀태	FO0003	미상(김광일)	미상	박물	1개	"	공개	주요 가을에...
학교 기록	성수 초등학교	1930년대	교과서	국어독본	SC0004	총독부(김세신)	1937년	도서	1권	"	공개	일제강점기때 사용...
행사 기록	낙성식	/	사진	대리제각 낙성식	EV0005	미상(미상)	1926년	사진	1장	"	공개	신평면 대리에...
행정 기록	신평 면사무소		근대	관인	구신평면 장관인	AD0006	미상(최상범)	1947년 추정	박물	1점	"	공개

〈그림 2〉 컬렉션별 아이템 기술 예시

### 5.2.2 적용방안

기록사랑마을 콘텐츠의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에 앞서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기록원은 시스템이 다루는 기록물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분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지역사회의 중요 기록물의 장기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도 장기보존을 기본적으로 염두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 지칭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상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표기할 것이다. <표 6>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정의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요건(NAK/S 7:2010 v.1.1)을 기반으로 AtoM 활용 영역을 분류하였다(국가기록원 2010). 이를 바탕으로 기록사랑마을 소장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 1) 인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존 대상 기록물을 인수해야 한다. 기록물의 인수는 주로 이관, 기증·위탁·회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수받은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디지털 기록물 또는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물 자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고, 디지털 기록물이 아닌 비전자기록물인 경우에는 기록정보를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기술하여 등록한다. <그림 3>과 같이 AtoM은 인수된 기록물의 등록을 위해 AtoM은 기록물 또는 기록정보를 하나씩 업로드하는 방법(link digital object)과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방법(import digital objects)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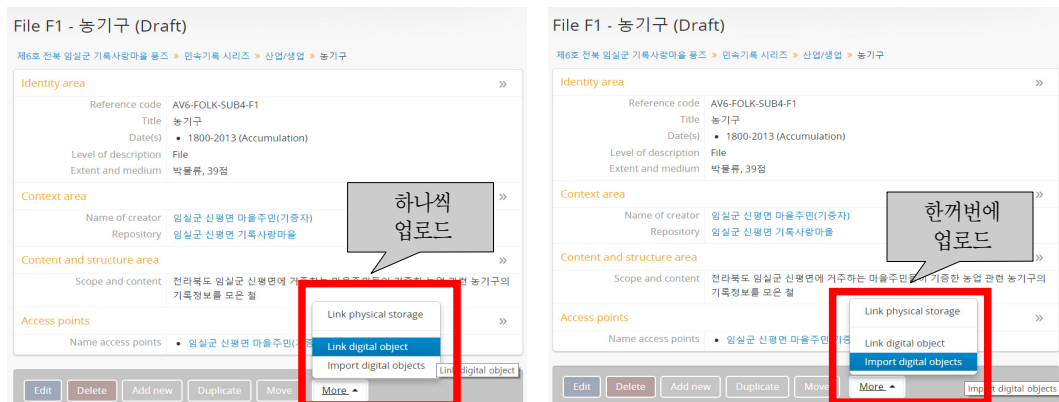
기록사랑마을은 1년에 1개 마을이 지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록물 또한 1년에 한번 씩 기록물이 대량으로 인수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량으로



〈표 6〉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에 따른 AtoM 적용 방안

상위 기능	하위 기능	세부 내용	영구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등록 (Add)	인수 기록(Accession records)	인수된 기록물 등록	①,③,④,⑤
	기술 정보 등록(Archival descriptions)	인수된 기록 정보 등록	①,②,③,⑦
	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s)	전거레코드 등록	③,⑧
	기록보존소(Archival institutions)	기록물 생산·보존 기관 등록	③,⑧
	용어(Terms)	기록물 및 시스템 관련 용어 등록	③,⑧
	기능(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③
관리 (Manage)	인수(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및 검색 제공	②,⑥,⑦
	기증자(Donors)	기증자 목록 및 검색 제공	⑥,⑦
	물리적 저장소(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및 관리	②,⑥
	저작권(Rights holders)	소유 단체 및 개인 이력 등록 및 관리	④,⑥
	택소노미(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및 관리	②,③,⑥
들여오기 (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①,⑤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①,⑤
관리자 (Admin)	사용자(Users)	AtoM 사용자 등록 미 관리 부여	④,⑧
	그룹(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및 변경	④,⑧
	정적 페이지(Static pages)	정적 페이지 관리	⑧
	메뉴(Menus)	메뉴 추가 및 순서 변경	⑧
	플러그인(Plugins)	AtoM에 적용된 플러그인 변경	⑧
	테마(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⑧
	설정(Settings)	시스템 전체 설정	⑧
	목록 제공(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전거레코드 등에 대한 목록 제공	⑧
숨김/보임(Visi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저장소' 숨김/보임	④,⑧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① 인수, ② 보존, ③ 데이터 관리, ④ 통제 및 보안, ⑤ 처분, ⑥ 통합 기록관리, ⑦ 검색 및 활용, ⑧ 관리



〈그림 3〉 기록물 AtoM에 업로드 사례

기록물이 인수됨에 따라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이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인데, 대량의 기록물이 일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기록물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맥락적 관계를 유지한 채로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록사랑마을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이 인수될 기록물 가운데 전자기록물이 수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등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AtoM은 기록을 기술하기 전에 입수기록(Accession records)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고, 기증자 목록, 저작권 레코드, 텍소노미, 보존서고 및 보존용품 등을 등록하여 기술표준과 연계할 수 있다(안대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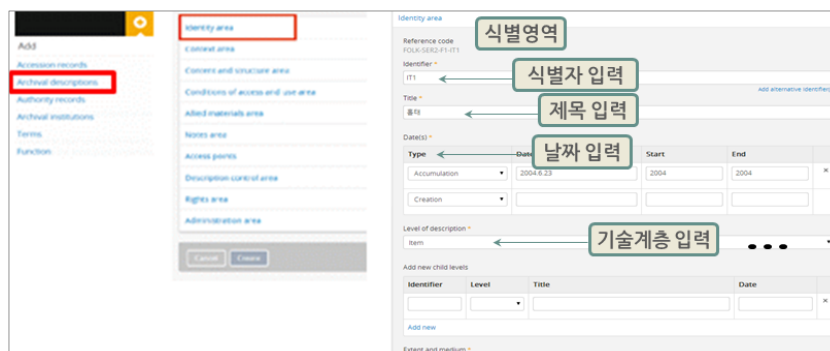
인수된 기록(정보)을 AtoM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를 식별해 주기 위해 식별자와 제목을 입력해야 한다. 이 식별자는 고정된 메타데이터로 저장, 관리되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메인 메뉴에서 '기술 정보 등록(Archival description)'을 클릭하면 ISAD(G) 템플릿이 등장하는데 이 중 '식별영역(Identity area)'을 클릭하여 기록정보 등록을 위한 식별자와 제목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기록사랑마을은 기증

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기록물을 등록할 때는 기록물의 정보와 함께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인수된 기록물은 관리자가 설정한 기록계층을 기반으로 각 기술 계층에 적합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때, 상위 계층 기술에서 이미 제공한 정보를 하위 계층에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2) 보존

AtoM은 추가(Add)의 하위 기능인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에서 입수된 기록에 대한 기술을 등록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시스템 내에 저장되도록 한다. 관리(Manage)의 하위 기능인 '물리적 저장소(Physical storage)'에서는 보존기록에 대한 기술과 그들의 실제 물리적 저장소의 위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한 분류 체계를 '텍소노미(Taxonomies)'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경우 대부분이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내에 위치하지만 일부 중요 기록물의 경우에는 원본은 다른 장소에 보존하고, 복제품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이력정보와 함께 기증자에



<그림 4> 인수-식별영역(Identity area)에서 식별자(Identifier) 생성

대한 정보 등을 함께 저장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록물이 비전자기록물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장된 기록정보는 검색을 통해 기록물의 현황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AtoM은 장기보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록관리 공개 소프트웨어인 Archivematica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 3) 데이터 관리

AtoM은 인수된 기록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AtoM은 ISAD(G), ISARR(CPF), ISDF, ISDIAH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준에 따라 기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MODS, RAD, DACS 등의 국가표준을 지원하고 있다. <표 7>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록을 등록하여 기술할 때는 ISAD(G) 템플릿을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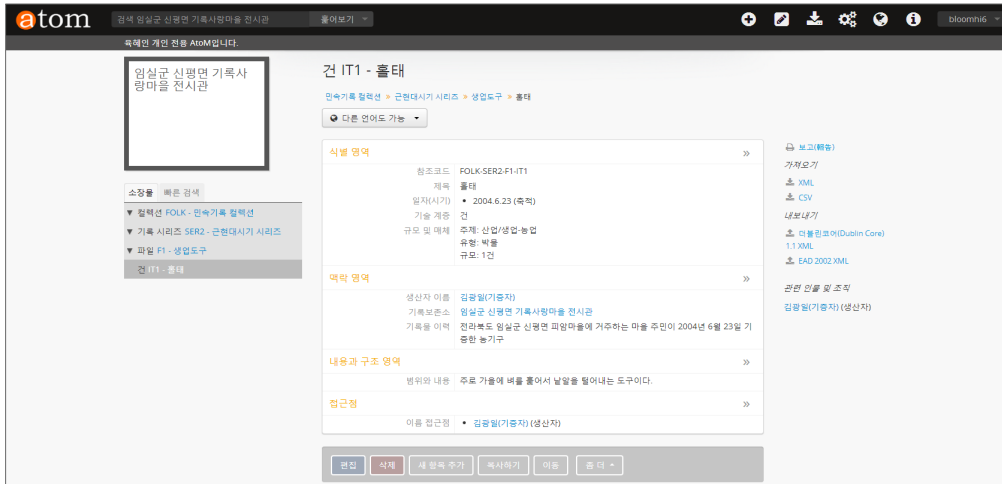
고, 증거자를 기술할 때는 ISARR(CPF)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은 ISDF, 기록소장기관은 ISDIAH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AtoM으로 기술한 결과물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기술표준의 특정필드가 다중 엔티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안대진 2015).

분류체계는 관리(Manage)의 하위 기능인 ‘택소노미(Taxonomies)’를 통해 기록 기술의 계층구조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 보유 기록물을 분류할 때는 마을별로 기록물의 유형과 수량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술 계층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술계층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할 경우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기록사랑마을과 향후 지정될 기록사랑마을에서 원활하게 쓰일 수 있고, 다양한 기록물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기록물에 대한 기술을 완료하면 다음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7> AtoM에 적용된 ICA 기술표준(description standards)

기록정보	단체/가문/개인정보	소장기관 정보	기능 정보
ISAD(G)	ISAAR(CPF)	ISDIAH	ISDF
식별	식별	식별	식별
맥락	기술	연락처	맥락
내용과 구조	관계	기술	관계
열람 및 이용조건	통제	열람	통제
연관자료		서비스	
노트		통제	
기술통제			
7영역 26개 항목	4영역 31개 항목	6영역 32개 항목	4영역 28개 항목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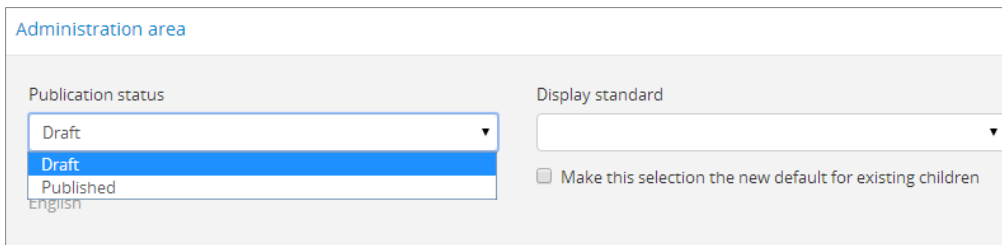


〈그림 5〉 아이템 단위의 기록 기술

4) 통제 및 보안

AtoM에 기록정보를 저장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저장소에 대한 보안성이다. AtoM은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만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다. AtoM은 비밀기록물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Draft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등록시 관리영역(Administration area)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Publication status에서 Draft를 선택

했다면 기록물이 비공개 처리하여 접근이 허용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고, Published를 선택하면 공개가 된다. 또한 AtoM 사용자의 유형은 연구자, 기증자, 편집자, 번역자,<sup>7)</sup> 관리자로 구분되는데, 관리자는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기술정보, 전거레코드, 태크노미, 기록관정보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AtoM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사용자 유형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고,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림 6〉 기록물 (정보)를 Draft(비공개)로 지정하는 사례

7) AtoM은 다국어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의 역할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안대진 2015).

## 5) 처분

AtoM은 처분을 위한 기능으로 '기록물 처분(Deaccession records)'을 제공하는데, 삭제되는 기록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기록 처분에 관한 정보인 처분 번호, 처분 범위 및 날짜, 처분 사유 등을 기입할 수 있고, 기록처분에 관한 기록 자체에 대한 편집과 삭제가 가능하다.

## 6) 통합 기록관리

AtoM은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본 디지털(born digital) 형태의 기록과 디지털화(being digital)된 형태의 기록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AtoM 시스템에 디스크립션과 디지털 객체를 함께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AtoM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한 디지털 객체 1건의 최대 용량은 64MB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동영상파일이나 음성 파일과 같은 기록물은 외부 스토리지의 URL을 링크하거나, 파일 위치가 표기된 CSV파일을 통해 한꺼번에 여러 기록과 링크하는 방법 또는 PHP 설정파일의 실행시간과 메모리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보다는 비전자기록물인 문서나 사진, 박물관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여 기록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뿐만 아니라 원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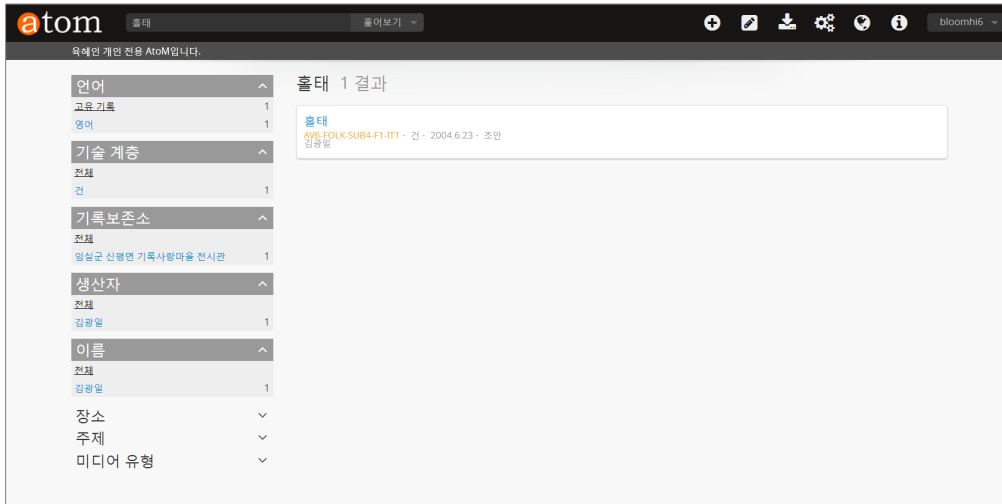
## 7) 검색 및 활용

본 연구에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AtoM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검색상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AtoM은 웹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관리영역(administration area)을 'published'로 지정한 기록(정보)에 한하여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과 같이 기관의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AtoM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이용하며 기록물 열람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안대진 2015). AtoM은 기본검색과 고급검색을 제공한다. 또한 좌측 메뉴를 통해 4가지 표준 유형과 주제, 인명, 장소, 미디어 유형별 열람이 가능하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개된 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또한 AtoM은 내보내기 와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관이나 콘텐츠와의 상호연동을 꾀할 수 있다. 내보내기는 DC 1.1 XML, EAD XML의 포맷을 지원하고, 가져오기는 XML, CSV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8) 관리

AtoM은 시스템 관리, 시스템 현황·기록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기능(admin)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AtoM 인스턴스는 램프(LAMP)<sup>8)</sup> 환경에 설치되며, 웹

8) LAMP는 웹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묶음으로, 리눅스 운영체제(Linux), 아파치 웹서버(Apache),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MySQL),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인 PHP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다(안대진 2015).



〈그림 7〉 '홀태'를 검색한 모습

디자인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심포니(Synfony)<sup>9)</sup>와 기록물 기술을 위한 툴킷을 제공하는 큐빗(Qubit)<sup>10)</sup>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안대진 2015). 기본적으로 Linux 환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indows 운영체제 내에서도 설치 및 구현이 가능하다. AtoM은 기본적으로 리눅스(Linux), 맥(Mac OS X), 윈도우(Windows)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구동속도와 오류여부 등을 생각할 때 리눅스 환경이 윈도우보다 더 유리하다. 또한 향후 웹 전시나 장기보존을 위해 Omeka 또는 Archivematica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환경이 더 안정적이다.

### 5.3 시사점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AtoM을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둘째,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셋째,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 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의 기록관리를 향상시키

9) Symfony는 PHP 컴포넌트 세트로 구성된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루팔(Drupal), 게시판 엔진으로 유명한 phpBB 등 수많은 OSS 프로젝트들이 사용하고 있다. Symfony는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OSS 프로젝트들이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안대진 2015).  
 10) 큐빗(Qubit, Quantum Bit)은 Symfony PHP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작동되는 정보관리 툴킷으로 웹 기반의 기록물 기술을 위한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AtoM의 핵심 기능인 ICA 기술표준과 메타데이터 표준의 작성, 검색엔진, 썸네일 생성기, 미디어 플레이어, 지도, 이미지 뷰어, CSS와 부트스트랩 등의 각종 틀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한다(안대진 2015).

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부분은 소홀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법령 개정 이후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기록사랑마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생소하기만 하던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비록 현 법령은 민간기록의 수집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도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기록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민간기록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 관리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 6.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록 가운데서도 국가기록원이 사업을 통해 지정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마을이 속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스템 부재로 인한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민간 아카이브가 직면하고 있는 비용과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용 웹 기반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을 활용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과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 구현을 제안하였다. AtoM은 공공기록을 기반으로 한 표준들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민간기록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록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방법론이 없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록원이 지정하고 있는 영역에서조차 통일된 관리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록사랑마을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사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물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의 도시생활과는 떨어져 주목받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 생활의 한 측면을 담아내는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단순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과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경상남도, 창원시. 2013.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지정관련 진해구 중앙동 현장 실사자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국가기록원. 2010.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7:2010 v.1.1)』.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3. 『2013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4. 중요 민간기록물 발굴지원('16년 제9호)을 위한 기록사랑마을 발굴조사 계획.
- 김상호. 2007. 민간기록물의 수탁 보존기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 197-216.
- 김 용. 2015. 디지털 환경과 정보보호[세미나 자료]. 전주: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주관. 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1): 217-249.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김대영, 김진,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 김해중. 2014. 『‘민간기록관’ 발전을 위한 단계별전략』.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남경희. 2009. 『국가지정기록물의 수집 관리 전략』.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 심갑용, 유현경, 문상훈, 이윤용, 이정현, 김용. 2015.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AtoM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5-42.
- 안대진. 2015. 『AtoM 시스템의 구축과 커스터마이징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3.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193-228.
- 이승일. 2014.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시스템 보안 침해 사례와 대책.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14년 10월 17-18일. 대전: 한남대학교.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인간과기억아카이브. 2014. 『AtoM 따라하기』. OSASF.
- 최정은. 2010.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 245-285.

#### [ 참고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Dae-Jin. 2015. *A Study on Constructing and Customizing an AtoM System*.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Choi, Jung-Eun. 2010. *The strategies for building online-archive of local historical records: focusing on Incheon City*. M.A.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Gyeongsangnam-do, Changwon-si. 2013. Jinhae-gu Jungang-dong site survey data about designating 'Archive Village'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 Human and Memory Archives. 2014. *Follow AtoM*. OSASF.
- Hyun, Moon-Soo, Bo-bae Jeon, and Dong-Hyun Lee. 2014. "Implement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for Shipbuilding Labor Digital Archives in Young-do,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2: 245-285.
- Kim, Hae-Joong. 2014. *Step-by-step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archives'*. M.A. thesis. Hannam University, Korea.
-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 Kim, Ji-Hyun. 2014.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 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05-126.
- Kim, Joo-Kwan. 2005. “The Meanings and Methods of the Construction of People’s Everyday Life Histories Archives.” *Regional History and Regional Culture*, 8(1): 217-249.
- Kim, Sang-Ho. 2007. “A Study on the Depository Archives of Private Records.” *Journal of Koreabiblio*, 36: 197-216.
- Kim, Tae-Young, Geon Kim, Gab-Yong Shim, and Yong Kim. 2014.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i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83-115.
- Kim, Yong. 2015. Digital environment and information protection [Seminar notes]. Jeonju, Korea: The Graduate School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 Record Management.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Critical review of history.
- Kwak, Kun-Hong. 2011.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 Archives of everyday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9: 3-33.
- Lee, Bo-Ram, Jin-Hyun Hwang, Min-Yung Park, Hyung-Hee Kim, Dong-Woon Choi, Yun-Jin Choi, and Jin-Hee Yim. 2013.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A Case of ICA Ato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9: 193-228.
- Lee, Seung-Il. 2014. Human and Memory Archives system security violations and measures. *Paper presented at 6th National Archivists Conference*, 17-18 October 2014, at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Young-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18: 221-254.
- Lee, Young-Nam. 2012.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1: 3-42.
- Nam, Kyoung-Hee. 2009. *Acquisition and Management Strategy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0.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rchive Management Systems*

- (NAK/S 7:2010 v.1.1).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13*.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4. The Excavation Plan of Archive Village Project for Important Private Records Excavation Support (2016 No.9).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eol, Moon-Won, Yi-Lang Choi, and Seul-Gi Kim. 2014.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Using Open Source Software to Document Mi-rya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7-36.
- Shim, Gab-Yong, Hyeon-Gyeong Yoo, Sang-Hoon Moon, Youn-Yong Lee, Jeong-Hyeon Lee, and Yong Kim. 2015. "A Study on Availability of AtoM for Recording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A Case of K-Food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2: 5-42.
- Sohn, Dong-You and Kyoung-Juhn Lee. 2013.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5: 161-206.
- Song, Jung-Sook, Jeong-Sook Heo, and Yea-Lin Lee. 2014. "Digital Image Archiving Methodology on the Port of Busan: A Case Study Using an Open-Source Archiving Softw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27-151.